

2025
중2-1
미래엔

2025 중2-1 국어 미래엔 | 4(2) 동백꽃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동백꽃」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어떤 유형이 자주 출제되나요?

「동백꽃」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성 및 서술자를 바꾸는 경우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는 문제,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인물의 특징 및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어~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작품의 내용과 서술자의 특성, 서술자를 바꾸는 경우 나타나는 변화, 소재의 의미, 인물의 특징 및 심리 등을 파악해 두면 되겠네요~

맞아.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줄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우선 「동백꽃」의 시점과 서술자, 인물의 처지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자.



* 「동백꽃」의 서술자: '나' (1인칭 주인공 시점)

- 「동백꽃」의 서술자를 '나'로 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서술자가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해학적이고 순수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음.

* 「동백꽃」의 서술자가 '나' → 등장인물이 아닌 제삼자로 변경되는 경우 나타나는 변화

- 남녀 주인공 모두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 남녀 주인공의 처지가 균형 있게 서술된다. /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남녀 주인공의 마음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어, 사건 전개가 독자의 예상과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점순이와 '나'의 행동에 담긴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원작에서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지만, 독자는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재미를 느꼈던 것인데,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2025
중2-1
미래엔

2025 중2-1 국어 미래엔 | 4(2) 동백꽃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발단] **오늘도**(현재 / : 소설 속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말. **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과 관련된 선지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전에도 '나'의 수탉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음.) **내**(서술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 '나'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 함, '나'는 점순이와 '나' 사이의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세히 전달함. /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의 등장인물 중 하나이며 자신의 눈으로 관찰한 사건과 인물을 독자에게 전달함. 서술자인 '나'의 시각에서만 사건을 보고 다른 인물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자 '나'가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독자가 사건의 전모를 추측하고 상상해야 함. / 서술자를 '나'로 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서술자가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해학적이고 순수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음. **소설의 서술자를 '나'로 설정하여 얻는 효과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닭이나 새가 날개를 벌리고 탁탁 치는 소리. '나'의 집 수탉과 점순네 수탉이 내는 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렸다**(둘 이상의 사람이나 짐승이 한데 섞여 어우러지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머리’를 숙되게 이르는 말 / 비속어의 효과: 현장감 부각)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뽀하게**(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실하다.) 생긴 놈)이 **덩저리**(‘몸집’을 낮잡아 이르는 말)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점순네 수탉과 우리 수탉의 크기의 차이('나'와 점순이의 처지의 차이를 암시), 점순이네 집에 대한 '나'의 위축감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그것도 **그냥 해내는**(상대편을 여지없이 이겨 내다.)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벗’의 방언 /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얻는 효과: 이 소설의 배경이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음.)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더 어찌할 나위가 없을 만큼 가차 없이) **닭아**(흔을 내다.)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나’의 집 수탉)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생생한 피)은 똑똑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나’가 점순이에게 매우 화가 남. 닭이 다친 것을 마치 자신이 다친 것처럼 느낌.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 직유법이 사용됨을 알 수 있음.)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나’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처지임. / 이유 ① 화가 아무리 났어도 생명을 죽일 수는 없으므로 ② 점순이가 약을 올린 것은 맞지만 닭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③ 닭을 죽였다가는 점순이에게 약점을 잡힐 수 있으므로 ④ 더 큰 복수나 화를 당할 수 있으므로 ⑤ ‘나’의 집안보다 점순이의 집안이 더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헛매질**(때릴 듯이 위협하는 짓)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싹을 붙여 났을 것이다.(점순이가 전에도 계속 닭싸움을 붙여 놓았음.) **바짝바짝 내 기를 울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점순이의 마음과 행동의 의도를 '나'의 관점에서 짐작함.)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고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나’는 점순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함. / 비속어의 효과: 현장감 부각, 웃음 유발)

▶▶ 발단 요약: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를 자주 괴롭힘.

[전개][**나를 전**(과거) 감자 **쪼간**(어떤 사건이나 일)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함. / 소설에 드러난 시간상 가장 과거의 일. / ‘현재-과거-현재’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 역순행적 구성이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 혹은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

는 구성을 말함. **작품을 (가)~(마)로 나누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적절히 배열한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쌩이질**(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점순이의 조숙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말 ①. **‘점순이는 계층 간의 차이로 ‘나’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고 **[긴치 않는**(‘긴하지 않다.’의 준말. 꼭 필요하지 않다.) **수작**(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낫잡아 이르는 말.)을 하는 것이다. **[(]**: ‘나’는 점순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점순이의 행동을 귀찮게 여김.)

▶ 나흘 전 점순이가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옴.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태도가 의아한 ‘나’ **황차**(‘황차’의 변한 말. ‘하물며’의 뜻)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딴?”(‘나’의 순박하고 어수룩하며 통명스러운 성격을 드러낸 부분 ①)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점순이의 조숙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말 ②)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나’에 대한 애정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음.) 그 속에 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알아채지 못한 ‘나’의 반응이 웃음을 유발함.(해학성) / 순박하고 어수룩하며 통명스러운 성격을 드러낸 부분 ② / 비속어의 효과: 현장감 부각, 웃음 유발. **“나’는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행동의 원인을 눈치 빠르게 알아챘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께**(저의 집 쪽)를 **할금할금**(결눈으로 살그머니 계속 할겨 보는 모양)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부엌일을 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덧입는 작은 치마)의 속으로 껴던 **바른손**(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이 드러남. / 의미: ①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호의를 드러냄. ② ‘나’와 점순이가 갈등을 시작하게 되는 매개체 ③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 줌. / 감자를 준 점순이의 의도 - ‘나’와 친해지고 싶다,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다. **‘감자’의 기능,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 애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점순이의 순박함이 드러남.)

하고 **생색**(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거나 자랑할 수 있는 체면)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조숙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말 ③ / 맛있는 감자를 ‘나’에게 맛있게 해주고 싶은 점순이의 마음)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점순이가 괜한 생색을 낸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해 거절함.)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말투와 태도로 ‘나’의 무뚝뚝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음. / 감자를 받은 후 ‘나’의 생각 - 갑작스럽다, 느닷없다, 자존심이 상한다.)

▶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한 무뚝뚝한 ‘나’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서술자를 변경하여 제시한 후, 차이점 또는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점순이는 만식이에게 자기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얼른 먹어 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만식은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여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썩 밀어 버렸다.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몹시 화가 났다. 점순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자, 만식은 점순이를 돌아다 보았다가 참으로 놀랐다.

서술자	‘나’	등장인물이 아닌 제삼자
서술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행동 • ‘나’의 속마음 • 점순이의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식의 행동 • 만식의 속마음 • 점순이의 행동 • 점순이의 속마음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나’에서 등장인물이 아닌 제삼자로 서술자를 바꾸었을 때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주인공 모두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 남녀 주인공의 처지가 균형 있게 서술된다. •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남녀 주인공의 마음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어, 사건 전개가 독자의 예상과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점순이와 ‘나’의 행동에 담긴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원작에서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지만 독자는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재미를 느꼈던 것인데, 이러한 효과가 사라진다. 	

* 시점의 종류

- 소설 속에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면 1인칭 시점임.
 -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함.
 - 1인칭 관찰자 시점: ‘나’가 관찰하는 입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해 줌.
- 소설 속에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 시점임.
 - 3인칭 전지적 시점: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모두 전해 줌.
 -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외하고 관찰한 내용만 전해 줌.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서술자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에서 ‘소설 속에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동리**(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에 모여 사는 곳)에 온 것은 **근**(뒤에 제시된) 수량에 거의 가까운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호의를 거절당해서 점순이의 자존심이 상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눈에 눈물이 조금 과다.) 것이 아니냐.]([]: 점순이의 심리: 무안하고 부끄러움. → ‘나’에 대한 원망, 야속함.)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엮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하게**(중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빠르게 가는 모양) **달아나는 것**(점순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눈이 독을 올리며 ‘나’를 쏘아보고 달아났는데, 이를 통해 점순이의 마음이 호의를 거절당한 무안함에서 분노로 바뀌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이다.

▶ 자존심이 상해 달아난 점순이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걱정하지 않아도 잘될 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게)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분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얼뜨기’의 사투리. 겁이 많고 어리석으며 다부지지 못하여 어수룩하고 얼빠져 보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 번 모질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점순이의 성격 - 천연덕스럽고 시원시원하며 녀살이 좋음. / 성격의 간접 제시. **점순이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 평소 녀살이 좋은 점순이의 성격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점순이의 기분이 상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수룩한 ‘나’, 성격의 간접 제시)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감자를 받지 않은 이유 - 그 말로 인해 ‘나’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음.) 그럴잖아도 저희는 **마름**(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 1930년대 시대상이 드러남.)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채**(‘괘지’의 변한 말. 마름과 소작인이 주고받는 소작권 위임 문서를 의미함.)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 일상 급실거린다.]([]: ‘나’와 점순이의 집안은 소작인과 마름 관계임. → ‘나’와 점순이 간의 사회적 계층 차이 / ‘나’는 점순이에게 위화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음.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1930년대 시대상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나’의 집이 점순네에 신세를 많이 졌음.) 그러면서도 **열일곱씩**(‘나’와 점순이의 나이를 알 수 있음.)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상황이나 사정 따위가 순탄하지 못하고 나쁘다.)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나’와 점순이가 정분이 났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 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나’가 점순이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점순이의 마음을 눈치 채지 못한 채 자신을 말려 죽이려 한다고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해학성) / 비속어 사용의 효과: 웃음 유발)

▶ 점순이와 ‘나’의 입장과 집안 사정

눈물을 흘리고 간 그담 날 저녁나절이었다.(점순이가 감자를 거절당한 날의 다음 날, 사흘 전)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점순이가 ‘나의 집 닭을 때리고 있었기 때문’) 점순이가 저의 집 **봉당**(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않고 흙바닥 그대로 둔 곳)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도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관심을 거절한 ‘나’에 대한 원망을 닭에게 표현함, ‘나’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임. **‘점순이는 닭을 괴롭히며 ‘나’에 대해 복수를 하였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요렇게 **암팡스레**(몸은 작아도 야무지고 다부진 면이 있게)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르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짱**(‘불기’를 낮잡아 이르는 말.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의 양쪽으로 살이 불룩한 부분)께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눈에 불이 일 것처럼 화가 몹시 나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 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화가 났음에도 마름인 점순이네 집의 눈치를 보는 ‘나’) 잡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랴구 그러니?”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빠지**(넙다 달아나다.) 앓을 수 없었다.

▶ 어머니의 역정 소리에 당황해 도망하는 '나'와 점순이

▶▶ 결말 요약: 화해를 한 점순이와 '나'가 함께 동백꽃 속으로 쓰러짐.
- 「동백꽃」

문제 해결과 적용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인 0의 '나'는 자신의 재능을 늘 스스로 의심해 왔다.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자란 0의 '나'**(0의 '나'의 가정환경)는 아버지가 학창 시절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믿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이상이 참가하는 사생 대회에 다른 학생 대신 나가 성의 없이 그린 그림이 장원이 된 뒤에는 자기의 재능에 더욱 확신을 하고 미술반에서 남들이 그림 그릴 때 놀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자신의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은 0의 '나')

한편, 1의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 수업 이외에도 피아노와 그림 과외를 받는다.(1의 '나'의 가정환경) 둘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지만 말을 걸거나 아는 체하는 사이가 아니다. 0의 '나'와 1의 '나'는 4학년 이 되어서 학교 대표로 군 단위의 **사생 대회**(풍경이나 실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림을 그려 그 실력을 겨루는 대회 / 이 소설의 제재)에 나간다. 이번에도 0의 '나'가 **장원**(여럿이 겨루는 경기나 오락에서 첫째를 함. 또는 그런 사람.)을 차지한다.

1(서술자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함. / 부유하게 자란 여성, 가정주부, 귀찮은 일은 싫어하고 쉽게 체념함. 욕심이 없음. 작가가 이 소설의 서술자를 두 명으로 설정한 까닭은, 서술자 양쪽의 생각을 모두 알게 되는 효과가 있음. 또는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과 고민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임. **서술자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상 같은 건 받아 본 적 없어.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개근상도 못 받았으니까. 상에 욕심을 부려 본 적도 없었어.**(삶의 태도가 의욕적이지 않음. '상'에 대한 1의 '나'의 생각 ①) **내게는 모자란 게 없어서 그랬는 지도 몰라.**(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은 이유 -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는 부유한 집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딸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여자 대학에서 가정학을 공부하다가 판사인 남편을 **중매**(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로 만나서 결혼했지.]([]: 1의 '나'의 성장 과정) 내가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쥘 건 아니라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적도 없어. 아이들은 예쁘고 별문제 없이 잘 자라 주었지. 큰아이가 중학교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는 적응에 힘이 들었지만 결국 학생 회장까지 지내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났지.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내가 타고난 행운, 삶 자체가 상이다 싶어.**(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상'에 대한 1의 '나'의 생각 ②)

▶ 1의 '나'가 살아온 행복한 삶

그렇지만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은 있지.(0의 '나'와 관련된 사건을 암시함.)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못 받은 거니까**(사생 대회에서 번호를 잘못 쓴 실수. **'번호를 잘못 적은 실수로 상을 받지 못함.'**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받을 상이 남에게 간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니면 천수기 선생님한테라도.

왜 안 했을까. [그때 나를 스쳐 가던 그 아이(또 다른 서술자인 0의 '나'), 그 아이의 표정 때문인지도 몰라. < 땀굴물이 흐르던 목덜미, 전신에서 풍겨 나던 뭔가 찌든 듯한 그 냄새, 그 **너절함**(허름하고 지저분한) 인상 >(< >: 0의 '나'의 가난하고 허름한 모습이 부유한 1의 '나'와 대조됨.)이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거야.(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 ① 귀찮음) **어쩌면 그 결과로 한 아이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씻지 못할 좌절감이 내게도 약간 느껴졌는지도 모르지.**(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 ② 실수를 바로 잡았을 때 다른 아이가 느낄 좌절감이 신경 쓰임.) 상관없어. 나는 그런 상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해. 그런 스트

2025
중2-1
미래엔

2025 중2-1 국어 미래엔 | 4(2) 동백꽃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 **오늘도**(/ : 소설 속 _____의 흐름을 알려주는 말. **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과 관련된 선지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전에도 _____의 수탉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음.) **내**(_____, _____인칭 _____시점: 주인공 _____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함, _____는 점순이와 '나' 사이의 일에 대한 _____과 _____을 자세히 전달함. / _____칭 시점은 _____가 작품의 _____중 하나이며 _____의 눈으로 관찰한 _____과 _____을 독자에게 전달함. 서술자인 _____의 시각에서만 _____을 보고 다른 _____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자 _____가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_____가 사건의 _____를 추측하고 상상해야 함. / 서술자를 _____로 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서술자가 _____의 애정 표현을 전혀 _____게 대응함으로써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_____적이고 _____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음. **소설의 서술자를 '나'로 설정하여 얻는 효과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닭이나 새가 _____를 벌리고 탁탁 치는 소리. _____의 집 수탉과 _____네 수탉이 내는 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둘 이상의 사람이나 짐승이 한데 섞여 _____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_____’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비속어의 효과: _____부각)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_____.) 생긴 놈)이 **덩저리**(‘_____’를 낮잡아 이르는 말)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점순네 수탉과 우리 수탉의 _____의 차이(‘나’와 점순이의 _____의 차이를 암시), 점순이네 집에 대한 ‘나’의 _____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그것도 그냥 **해내는**(상대편을 여지없이 _____내다.)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_____’의 방언 / 지역 _____을 사용하여 얻는 효과: 이 소설의 배경이 _____마을이기 때문에 _____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음.)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더 어찌할 나위가 없을 만큼 _____없이) **뉘아**(_____을 내다.)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_____의 집 수탉)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생생한 피)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_____가 점순이에게 매우 _____가 남. _____이 다친 것을 마치 _____이 다친 것처럼 느낌.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 _____법이 사용됨을 알 수 있음.)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_____는 _____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_____하는 처지임. / 이유 ① 화가 아무리 났어도 _____을 _____일 수는 없으므로 ② 점순이가 _____을 올린 것은 맞지만 _____을 _____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③ _____을 죽였다가는 점순이에게 _____을 잡힐 수 있으므로 ④ 더 큰 _____나 _____를 당할 수 있으므로 ⑤ ‘나’의 집안보다 점순이의 집안이 더 _____지위나 _____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헛매질**(때릴 듯이 _____하는 짓)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점순이가 전에도 계속 _____을 붙여 놓았음.)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점순이의 _____과 행동의 _____를 _____의 관점에서 짐작함.)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_____는 점순이의 행동을 _____하지 못함. / 비속어의 효과: _____부각, _____유발)

▶▶ 발단 요약: _____가 _____으로 _____를 자주 괴롭힘.

[] [**나흘 전**(_____) 감자 **쪄간**(어떤 _____이나 _____)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과거의 사건을 _____함. / 소설에 드러난 시간상 가장 _____의 일. / ‘_____ - _____ - _____’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 _____

2025
중2-1
미래엔

2025 중2-1 국어 미래엔 | 4(2) 동백꽃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제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향토적, 해학적
제재	사춘기 남녀의 사랑
배경	1930년대 강원도 동촌의 어느 마을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동촌의 젊은 남녀가 보여 주는 순박한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의 독백 형식으로 전개됨. • 토속어, 비속어, 구어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성격을 띤.

2. 전체 짜임

발단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를 차꾸 괴롭힘.
전개	나흘 전, '나'에게 감자를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부터 점순이가 '나'의 닭을 괴롭힘.
위기	'나'는 수탉에게 고추장까지 먹여 싸움을 시켰으나 패함.
절정	찾김에 점순이네 닭을 죽이고 울음을 터뜨린 '나'를 점순이가 위로함.
결말	화해를 한 점순이가 '나'와 함께 동백꽃속으로 쓰러짐.

3. 등장인물의 처지와 성격

	'나'
성별	남
나이	17살
신분	마름네 점순이네 집에서 땅을 부치는 소작동의 아들
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 간의 차이로 점순이에게 열등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 소작동의 자식으로 땅과 집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산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뚝뚝하고 고지식하다. • 점순이가 자신에게 애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진하다. • 다혈질적인 데가 있다.

	점순이
성별	여
나이	17살
신분	마름네 딸
처지	방어적인 '나'에게 계속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순박한 농촌 처녀이다. • 활발하고 씩씩하다. • 야무지고 맵서운 면이 있다.

TEST 1단계

1. 제재 정리

갈래	<input type="checkbox"/> 대 소설, <input type="checkbox"/> 편 소설
성격	<input type="checkbox"/> 토적, <input type="checkbox"/> 학적
제재	<input type="checkbox"/> 춘기 <input type="checkbox"/> 녀의 사랑
배경	19□0년대 강원도 <input type="checkbox"/> 촌의 어느 마을
시점	<input type="checkbox"/> 인칭 <input type="checkbox"/> 인공 <input type="checkbox"/> 점
주제	<input type="checkbox"/> 촌의 젊은 남녀가 보여 주는 <input type="checkbox"/> 박한 <input type="checkbox"/> 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input type="checkbox"/>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 <input type="checkbox"/>인칭 <input type="checkbox"/>인공 서술자의 <input type="checkbox"/>백 형식으로 전개됨. • <input type="checkbox"/>속어, <input type="checkbox"/>속어, <input type="checkbox"/>어체를 사용하여 <input type="checkbox"/>토적 성격을 띤.

2. 전체 짜임

발단	점순이가 <input type="checkbox"/> 싸움으로 '나'를 자꾸 괴롭힘.
전개	나흘 전, '나'에게 <input type="checkbox"/> 자를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부터 점순이가 '나'의 <input type="checkbox"/> 을 괴롭힘.
위기	'나'는 수탉에게 <input type="checkbox"/> 추장까지 먹여 싸움을 시켰으나 패함.
절정	황김에 점순이네 닭을 <input type="checkbox"/> 이고 울음을 터뜨린 '나'를 점순이가 위로함.
결말	화해를 한 점순이가 '나'와 함께 <input type="checkbox"/> 백꽃속으로 쓰러짐.

3. 등장인물의 처지와 성격

	'나'
성별	남
나이	17살
신분	<input type="checkbox"/> 름인 점순이네 집에서 땅을 부치는 <input type="checkbox"/> 작농의 아들
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층 간의 차이로 점순이에게 <input type="checkbox"/>등감과 <input type="checkbox"/>화감을 느끼고 있다. • <input type="checkbox"/>작농의 자식으로 땅과 집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input type="checkbox"/>포심을 가지고 산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뚝뚝하고 <input type="checkbox"/>지식하다. • 점순이가 자신에게 <input type="checkbox"/>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input type="checkbox"/>진하다. • <input type="checkbox"/>혈질적인 데가 있다.

	점순이
성별	여
나이	17살
신분	<input type="checkbox"/> 름네 딸
처지	방어적인 '나'에게 계속 <input type="checkbox"/> 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input type="checkbox"/> 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input type="checkbox"/>극적으로 표현해 보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input type="checkbox"/>박한 농촌 처녀이다. • <input type="checkbox"/>달하고 <input type="checkbox"/>씩하다. • 야무지고 <input type="checkbox"/>서운 면이 있다.

TEST 2단계

1. 제재 정리

갈래	㉠ 소설, ㉡ 표 소설
성격	㉠ 트 적, ㉡ 흥 적
제재	㉠ 툄 툄 의 사랑
배경	㉠ 툄 툄 툄 툄 년대 강원도 ㉡ 툄 의 어느 마을
시점	㉠ ㅅ ㅅ 툄 ㉡ 툄 ㅅ 툄 ㉢ 툄 툄
주제	㉠ 툄 툄 의 젊은 남녀가 보여 주는 ㉡ ㅅ ㅅ ㅅ 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 ㅅ ㅅ 적 구성 방식을 취함. • ㉠ ㅅ ㅅ 툄 ㉡ 툄 ㅅ 툄 서술자의 ㉢ ㅅ 형식으로 전개됨. • ㉠ ㅅ 어, ㅅ ㅅ 어, ㉡ ㅅ ㅅ 체를 사용하여 ㉢ 트 적 성격을 띠.

2. 전체 짜임

발단	점순이가 ㉠ ㅅ ㅅ 으로 '나'를 자꾸 괴롭힘.
전개	나흘 전, '나'에게 ㉡ 툄 툄 를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부터 점순이가 '나'의 ㉢ 을 괴롭힘.
위기	'나'는 수탉에게 ㉣ 툄 툄 까지 먹여 싸움을 시켰으나 패함.
절정	햇김에 점순이네 닭을 ㉤ ㅅ 고 울음을 터뜨린 '나'를 점순이가 위로함.
결말	화해를 한 점순이가 '나'와 함께 ㉥ ㅅ 속으로 쓰러짐.

3. 등장인물의 처지와 성격

	'나'
성별	남
나이	17살
신분	㉠ ㅅ 인 점순이네 집에서 땅을 부치는 ㉡ 툄 툄 의 아들
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툄 간의 차이로 점순이에게 ㉣ ㅅ 감과 ㉤ 흥 감을 느끼고 있다. • ㉠ 툄 툄 의 자식으로 땅과 집을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 표 심을 가지고 산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ㅅ ㅅ 하고 ㉡ 툄 툄 하다. • 점순이가 자신에게 ㉣ 툄 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 툄 하다. • ㉤ 흥 툄 적인 데가 있다.

	점순이
성별	여
나이	17살
신분	㉠ ㅅ 네 딸
처지	방어적인 '나'에게 계속 ㉡ 툄 툄 적으로 대할 수 있는 ㉢ 흥 적 배경을 갖고 있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 툄 적으로 표현해 보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 ㅅ 한 농촌 처녀이다. • ㉠ 흥 ㅅ 하고 ㉡ ㅅ ㅅ 하다. • 야무지고 ㉢ ㅅ ㅅ 면이 있다.

TEST 3단계

1. 제재 정리

갈래	□□ 소설, □□ 소설
성격	□□적, □□적
제재	□□□ □□의 사랑
배경	□□□□년대 강원도 □□의 어느 마을
시점	□□□ □□□ □□
주제	□□의 젊은 남녀가 보여 주는 □□□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적 구성 방식을 취함. • □□□ □□□ 서술자의 □□ 형식으로 전개됨. • □□어, □□어, □□체를 사용하여 □□적 성격을 띤.

2. 전체 짜임

발단	점순이가 □□□으로 '나'를 자꾸 괴롭힘.
전개	나흘 전, '나'에게 □□를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부터 점순이가 '나'의 □을 괴롭힘.
위기	'나'는 수탉에게 □□□까지 먹여 싸움을 시켰으나 패함.
절정	황김에 점순이네 닭을 □□고 울음을 터뜨린 '나'를 점순이가 위로함.
결말	화해를 한 점순이가 '나'와 함께 □□□속으로 쓰러짐.

3. 등장인물의 처지와 성격

	'나'
성별	남
나이	17살
신분	□□인 점순이네 집에서 땅을 부치는 □□의 아들
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간의 차이로 점순이에게 □□감과 □□감을 느끼고 있다. • □□□의 자식으로 땅과 집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심을 가지고 산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하다. • 점순이가 자신에게 □□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다. • □□□적인 데가 있다.

	점순이
성별	여
나이	17살
신분	□□네 딸
처지	방어적인 '나'에게 계속 □□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적 배경을 갖고 있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적으로 표현해 보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한 농촌 처녀이다. • □□하고 □□하다. • 야무지고 □□□ 면이 있다.

TEST 4단계

1. 제재 정리

갈래	___ 소설, ___ 소설
성격	___ 적, ___ 적
제재	___의 사랑
배경	___년대 강원도 ___의 어느 마을
시점	_____
주제	___의 젊은 남녀가 보여 주는 _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___적 구성 방식을 취함. • ___ 서술자의 ___ 형식으로 전개됨. • ___어, ___어, ___체를 사용하여 ___적 성격을 띠.

2. 전체 짜임

발단	점순이가 ___으로 '나'를 자꾸 괴롭힘.
전개	나흘 전, '나'에게 ___를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부터 점순이가 '나'의 ___을 괴롭힘.
위기	'나'는 수탉에게 ___까지 먹여 싸움을 시켰으나 패함.
절정	황김에 점순이네 닭을 ___고 울음을 터뜨린 '나'를 점순이가 위로함.
결말	화해를 한 점순이가 '나'와 함께 ___속으로 쓰러짐.

3. 등장인물의 처지와 성격

	'나'
성별	남
나이	17살
신분	___인 점순이네 집에서 땅을 부치는 ___의 아들
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간의 차이로 점순이에게 ___감과 ___감을 느끼고 있다. • ___의 자식으로 땅과 집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___심을 가지고 산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하고 ___하다. • 점순이가 자신에게 ___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___하다. • ___적인 데가 있다.

	점순이
성별	여
나이	17살
신분	___네 딸
처지	방어적인 '나'에게 계속 ___적으로 대할 수 있는 ___적 배경을 갖고 있다.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___적으로 표현해 보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___한 농촌 처녀이다. • ___하고 ___하다. • 야무지고 ___면이 있다.

O / X 문제

【1~15】 「등백꽃」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 (O / X)
2. 서술자가 상대방의 의중을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O / X)
3. 소설 속에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 (O / X)
4. ‘나’의 눈물은 점순이에 대한 ‘나’의 짝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O / X)
5. 토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성격을 띠고 있다.
..... (O / X)
6.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를 통해서 1930년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O / X)
7.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점순이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어수룩한 서술자의 모습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O / X)
8. ‘나’는 못생긴 우리 수탉보다 실팍하게 생긴 점순네 수탉이 더 마음에 든다. (O / X)
9. 점순이는 계층 간의 차이로 ‘나’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 (O / X)
10.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다. (O / X)

11. 점순이는 ‘나’에 대한 애정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 (O / X)

12. ‘감자’는 점순이가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소재이다. (O / X)

13.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통해 역순행적 구성임을 알 수 있다. (O / X)

14. ‘나’는 “그럼 너 이담부담 안 그럴 테냐?”라는 점순이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래!”라고 대답하였다. (O / X)

15. ‘나’는 자존심이 상해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하였다. (O / X)

【16~20】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6. 두 서술자 중 한 명은 과거를 중심으로, 다른 한 명은 현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O / X)

17. 두 인물이 번갈아 가며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O / X)

18. 0의 ‘나’는 사생 대회 결과에 감격하여 선생님 품에서 울기까지 해서 뒤늦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결과를 바로잡지 못했다. (O / X)

19. 1의 ‘나’는 수상작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밝혀 결과를 바로잡았다. (O / X)

20. 결과를 바로 잡는 것에 대한 0의 ‘나’와 선생님과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O / X)

- | | | | | | | | |
|-------|-------|-------|-------|-------|-------|-------|-------|
| 1. X | 2. O | 3. X | 4. X | 5. O | 6. O | 7. O | 8. X |
| 9. X | 10. O | 11. X | 12. O | 13. O | 14. X | 15. O | 16. X |
| 17. O | 18. O | 19. X | 20. X | | | | |

2025
중2-1
미래엔

2025 중2-1 국어 미래엔 | 4(2) 동백꽃 복습 필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렀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러 가며 여지없이 닦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 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뺏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울리느라고 그랫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를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